

日本唯一の千体観音堂

正式には蓮華王院(国宝)といい、長寛2年(1164)鳥辺山麓(現・阿弥陀ヶ峯)の後白河上皇・院政庁「法住寺殿」の一角に平清盛が造進した。約80年後に焼失したが、すぐに復興に着手し文永3年(1266)に再建された。その後、室町・桃山・江戸そして昭和と4度の大修理により700余年間保存されている。長いお堂は和様の入母屋・本瓦葺きの「総檜造り」で約120メートル。正面の柱間が33あるところから「三十三間堂」と通称され、堂内には1001体の観音像がまつられる。また、見落としがちだが境内・南の通称「太閤塀」と呼ばれる築地塀と南大門は、ともに豊臣秀吉ゆかりの桃山期の気風にあふれた重文・建造物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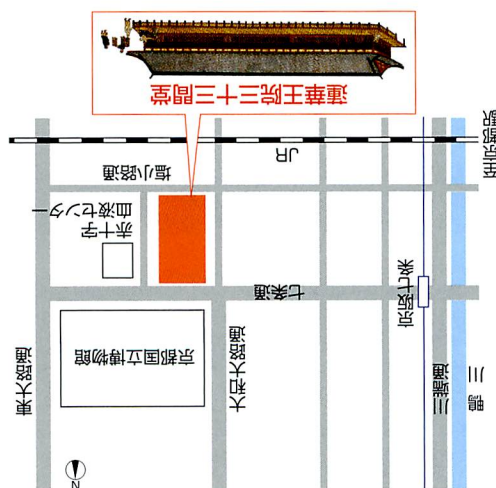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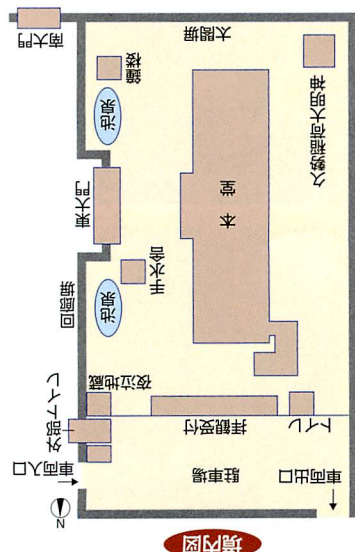
The official name of Sanjūsangen-dō is Rengeō-in temple, and the structure is registered as a National Treasure by the Japanese government. It was established by the powerful warrior-politician Taira-no-Kiyomori in 1164. The original temple building was lost in a fire, but the building was reconstructed in 1266. That structure has remained unchanged for 700 years since then with four great renovations during that period. The long temple hall, which is about 120 meters long, is made in the Wayō (Japanese) style architecture. As there are thirty-three spaces between the columns, this temple came to be called "Sanjūsangen-dō" (a hall with thirty-three spaces between columns). Other noteworthy objects in this temple are the roofed earthen fence and the South Gate, which are register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They are noted in connection with Regent Toyotomi Hideyoshi and reflect the aesthetics of the 16th century.

正式名称叫作蓮花王院(国宝), 長寛2年(1164年), 由平清盛在位于鸟边山麓(现阿弥陀峰)的后白河上皇的院政庁「法住寺殿」内营建而成。约在80年后, 不幸被烧毁, 后立即着手进行重建, 文永3年(1266年)重新建成。此后, 经过室町、桃山、江戸以及昭和年间的4次大规模整修, 至今已保存了700年。长形佛堂采用日式歇山顶形式—正规模瓦屋面的“全丝柏建造”形式, 全长约120米。因正面被柱子分割成33间(1间约为1.8米), 故通称为“三十三间堂”, 佛堂内供奉着1001座观音像。此外, 易被忽略的是院内南面通称为“太閤塀”的瓦顶板水泥墙和南大门, 两建筑都是充满与丰臣秀吉密切相关的桃山时代气息的重要文化财产。

정식명칭은 렌게오인(蓮華王院:국보)이라고 한다. 1164년 도리베산로구(현·아미타가미네)의 고시라카와 상왕(後白河上皇)의 인정청(院政庁)인 호슈지도노(法住寺殿)의 일각에 다이라노키요모리(平清盛)가 만들었다. 약 80년 후에 소실되었지만, 곧 복원에 착수하여 분에이(文永)3년(1266)에 재건되었다. 그 후 무로마치, 모모야마, 에도, 그리고 쇼와 시대의 4번에 걸친 대수리에 의해 700년간 보존되어 왔다. 긴 건축물인 당(堂)은 일본풍의 이리모야(入母屋:지붕 구조의 일종)와 본 기와를 얹은 '소히노키' 구조(総檜造り)로 길이가 120m. 당(堂) 정면의 기둥과 기둥 사이가 33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산주산겐도(33간당)라 불린다. 당내에는 1,001구의 관음상이 모셔져 있다. 간과하기에 십상이지만 경내 남쪽 담은 통칭 '타이코베이'(太閤塀)이라 부르는 쓰이지베이(築地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인연이 있는 모모야마(桃山) 시대의 기풍 넘치는 건조물이다.

〒605-0941 京都市東山区三十三間堂廻町657
TEL(075)561-0467 ■駐車場:あり(無料)50台
■アクセス:JR京都駅より市バス206・208系統15分・京都国立博物館南側
■開門時間:8時~17時(11月16日~3月は9時~16時)受付終了は各30分前(年中無休)
ホームページアドレス:www.sanjusangen-do.jp

蓮華王院三十三間堂



風物詩となっている。迎えた女性たちの晴れ着での競技は、いまや正月のはその記録)にちなむ弓道大会が開催され、特に成人を縁で行われた弓の競技で、堂内にこの多数の絵馬。お堂の西庭では、終日、古儀・通し矢(江戸時代に外。境内は無料公開され、全国から約2万人が群参する。大の縁日で「頭痛封じ」にご利益があるといわれる。「楊枝のお加持」は毎年1月中旬に行なわれる当院最

楊枝のお加持と通し矢



国宝 三十三間堂

National Treasure
Sanjūsangen-dō





中央の巨像(中尊)を中心に左右に各500体(重文)、合計1001体がご本尊。正しくは「十一面千手千眼観世音」といい、当院の像は檜材の「寄木造り」で、頭上の11の顔と40種の手に表現される。中尊(国宝)は、大仏師湛慶(運慶の長男)82歳の時の造像で鎌倉期(建長6年)の名作と評価される。等身立像の中、124体はお堂創建時の平安期のもので、他の800余体は鎌倉期の再建の折に約16年をかけて復興された。

The principal images of Sanjūsangen-dō temple are the 1001 statues of the Buddhist deity, Juichimen-senju-sengen Kannon, which is often called by the simplified name, "Kannon". One thousand standing statues of Kannon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and one gigantic seated statue (National Treasu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standing statues, are housed in the temple hall. The statues are made of Japanese cypress. Among the standing statues, 124 were made in the 12th century when this temple was founded, and the remaining 876 were made in the 13th century when the temple was renovated.

以中央的巨大佛像(中尊)为中心,左右各供奉着500座佛像(重要文化财产),共计有1001座主佛。正确名称应叫“十一面千手千眼观世音”,本寺院的佛像是以丝柏为原料采用“木块镶嵌工艺”制成的,主要表现在佛像头上的11张脸和40种手上。中尊(国宝)是佛像制作大师湛庆(运庆的长子)82岁时建造的,被誉为镰仓时代(建长6年)的名作。等身立像中有124座是佛堂创建时平安时代的作品,其余的800多座佛像是镰仓时代重建寺院时约花16年修复的。

중앙의 거대한 불상(중존:中尊)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500구(중요문화재)씩, 합계 1001구가 본존(本尊)이다. 이들 관음상의 정식명칭은 십일면천수천안관세음(十一面千手千眼觀世音)이라고 하며, 재료가 히노키(편백나무)이다. 제작 방법은 요세기즈쿠리(寄木造:신체의 여러 부분을 따로 만들어 조립)로,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과 40종의 팔로 표현 되어 있다. 중존(中尊:국보)은 불상 조각가 단케이(湛慶:運慶의 장남)가 82세 때 만든 작품으로 가마쿠라(鎌倉)시대의 명작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등신입상(等身立像) 중 124구는 당(堂) 창건 당시의 헤이안(平安)시대 작품이고, 나머지 800여구는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재건 때 16년에 걸쳐서 복원된 것들이다.



堂内両端のひとときわ高い雲座にのった風神と雷神像は力強く躍動的。古代人の自然や天候に対する畏れや感謝の心が、空想的な二神を創造し、風雨をつかさどり、「五穀豊穡」をもたらす神々として信仰された。太鼓を打つ雷さまと風の袋をかかえた風の神というイメージを決定づけた鎌倉彫刻の名品(国宝)である。

The powerful and dynamic statues of the Thunder God and the Wind God are placed at either side of the temple hall on raised pedestals of cloud shape. The images of these gods derived from people's fear of and gratitude for nature in the old days. People worshipped them as deities who controlled rain and wind, and brought about good harvests. These statues are representative masterpiece sculptures of the Kamakura period (12th-14th centuries).

大堂两端更高一层的云座上坐着的风神和雷神给人一种力量强大、栩栩如生的感觉。古人对自然及气候所怀有的那种敬畏和感激之情创造出假想之神,作为能够支配风雨,带来“五谷丰登”的神灵而受到人们的信仰。这两座佛像是决定击鼓雷神和怀抱风袋的风神形象的镰仓时代的名雕(国宝)。

당(堂)내 양단의 한층 높은 운좌(雲座)에 오른 풍신(風神)상과 뇌신(雷神)상은 힘 있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고대인의 자연과 날씨에 대한 외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이 공상적인 두 신을 창조했다. 풍우를 지배하고 오곡풍양을 가져다주는 신들로 신앙되었다. 복을 힘차게 두드리고 있는 뇌신상과 풍선 같은 자루를 등에 진 풍신상은 두 신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담아낸 가마쿠라(鎌倉)조각의 명작(국보)이다.



観音像の前列と中尊の四方に位置する変化に富んだ28体の仏像(国宝)は、千手観音とその信者をまもるといふ神々でインド起源のものが多く、その神話的な姿が逼真的に表現されている。技法的には檜材の「寄木造り」で、仏像の手や顔を別々に彫んで接着し、漆を塗って彩色仕上げをしたものである。目にはより写実性を高めるため、水晶をはめ込む「玉眼」という技法が用いられている。

The twenty-eight images placed in a straight line in front of the 1001 Kannon statues are guardian deities which protect the Buddhist deity Kannon as well as pious Buddhists who believe in Kannon. Many of these deities, whose mythic images are expressed in a vivid manner, have their origin in ancient India. Technically these statues are made in an assembled construction method. Arms and heads were carved separately, then joined together, coated with lacquer, and finished by coloring.

位于观音像的前排和中尊四周的富有变化的28尊佛像(国宝),是保护千手观音及其信徒的神,大多起源于印度,其神话般的姿态得到了逼真的表现。在技法上以丝柏为原料采用“木块镶嵌工艺”制成,分别雕好佛的手和脸后粘结在一起,最后涂漆上色而成。为使眼睛显得更加逼真,采用了镶嵌水晶这一被称为“玉眼”的制作工艺。

관음상의 앞줄과 중존(中尊)의 사방에 위치하는 다양한 28구의 불상(국보)은 천수관음과 신자를 수호하는 신들로 인도에서 기원하는 것들이 많고, 그 신화적인 모습이 박진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재료는 히노키(편백나무)고 제작 방법은 요세기즈쿠리(寄木造:신체의 여러 부분을 따로 만들어 조립)로, 불상의 손이나 얼굴을 따로 조각하여 접착하고, 옷칠을 한 후에 색을 칠하여 완성시킨 것이다. 눈에는 보다 사실성 높이기 위해 수정을 끼워 넣는 옥안(玉眼)이라고 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